

천안의 樓亭詩 고찰

송 기 섭*

<目次>

- | | |
|----------------------|----------------------|
| I. 머리말 | IV. 천안지역 누정시의 문학적 가치 |
| II. 천안지역의 특색과 누정시 | V. 맺음말 |
| III. 천안지역 누정시의 시적 특성 | |

<국문 초록>

樓亭은 일부 상류층 및 식자층의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조선 이후 儒家정신과 결합함으로써 풍류를 즐기고 이념 등을 논하면서, 자연과 교감하는 장소로 그 역할을 다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느낌을 시로 읊었으며, 그 내용의 양상이 누정의 역사, 위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천안의 누정에서도 역시 역사, 지리, 그리고 환경의 특색에 따라 시의 내용적 양상이 달리 나타나는데 북부지역은 백제 초기의 도읍이었고 三南으로 통하는 岐路였기에 내용상 백제 망국의 슬픔과 갈림길에서의 자신의 幽愁를 표현하는 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중부지역은 고려태조의 자취가 많이 남아 있고 선비들이 남북으로 오가면서 머물렀던 곳이어서 누정의 많은 시들이 태조의 발자취와 향수를 달래며 고민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남부지역은 아름다운 勝地가 많고 이곳의 정자들은 자연 속에 위치해 있어 자연산수를 소재로 노래한 시가 대부분이다.

이에 천안 누정의 지역적 특색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시의 특성을 살펴보면

* 아산고등학교 / sks4423@naver.com

서거정의 「濟源樓」와 구봉령의 「次稷山濟源樓韻」에서는 망백제국의 슬픔을, 朴長遠의 「題天安郡樓」와 金宗直의 「登天安宣化樓」에서는 고려 태조의 자취를, 숙종의 靈召亭은 조선 임금의 자취를 남기고 있어 우리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누정에 배어 있다.

李承召의 「宣化樓」와 吳翻의 「天山水仙亭」에서는 향수 때문에 그 고민을 노래하고 있는 반면 申濡의 「滌愁樓」와 任陞의 「寒食登滌愁樓」에서는 자신의 시름을 씻어내려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어 이곳을 지나다 머무르며 느끼는 감정이 다양하게 시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의 지리적 특색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勝地에 위치한 정자에서 읊은 시들은 산수를 벗 삼고 또한 가까운 벗과 화답하며 주변의 경관을 그리고 노래함으로써 옛 선비들의 교유와 철학적 사고를 느끼게 하고 있다. 유광홍의 「自閑亭」과 韓相旭의 「龍珠亭」에서는 정자에서의 선비들의 일상을 그리고 있고, 金得臣의 伏龜亭과 郭時徵의 景寒亭에서의 자연에 동화되어 즐기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져 있으며 朴胤源의 「登伏龜」는 우주만물의 생성소멸과 순환의 이치를, 申光漢의 시 「題安亭」에서는 安貧樂道를 깨닫고자하는 고뇌에 찬 모습을 잘 그리고 있어 이곳의 환경적 요소가 깊이 가미되어 있다 하겠다.

이처럼 누정의 위치에 따라 역사적, 지리적, 환경적 요인이 내용에 적극 반영되어 있음은 이곳의 누정시 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이고 이외에 누정 속에서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읽을 수 있어 樓亭이 우리의 훌륭한 문화로 발전하는데 그 역할이 매우 지대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주제어】 누정시, 천안, 기로, 누각, 정자

I. 머리말

우리나라 樓亭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三國遺事』에 보이는데 “신라 毗處王 즉위 10년(戊辰 488년) 정월에 <天泉亭>에 행차했다.”는 내용이다. 그 후 백제 동성왕 때의 <臨流閣>, 무왕 때의 <望海樓>, 義慈王

때의 <望海亭>, 그리고 신라 太宗武烈王 때의 <鼓樓>가 『三國史記』에 기록되어 있어 그 역사의 깊이를 짐작하게 한다.

고려시대 역시 李奎報의 「四輪亭記」¹⁾, 鄭敳의 「鄭瓜亭曲」²⁾ 등이 지어진 사실과 천안지역의 누정 중 이 시기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어 이때도 누정의 보급이 보편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懷古亭記」와 「南院樓記」에 의하면 忠穆王 4년(1348년)에 寧州의 수령 成元揆가 옛 정자를 철거하고 <懷古亭>을 築成하였으며, 禹王 1년(1375년)에 수령 任君碩이 왜구에 의해 불 타 없어진 ‘南院樓’를 再築하였다는 기록이 이것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의 樓亭은 儒家의 정신과 결합하여 풍류를 즐기면서 심신을 달래는 공간으로써, 학문적 이념을 토론하고 세상의 일상에 대하여 대화하는 공간으로써, 그리고 자연과 교감하면서 浩然之氣를 기르는 쉼터로써 활용되었다. 이러한 休憩과정에서 우리 고유의 미의식이 발현하였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선비문화가 형성되었으며, 누정에서 형성된 여러 선비문화 중 자신의 느낌을 시로 표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문화의 하나였던 것이다.

천안의 누정시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지역은 역사적, 지리적, 자연 환경적으로 특색이 있는 곳이어서 그것이 누정시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천안의 누정시를 살펴보면 누정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여기에서 느끼는 지은이의 심경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本攷에서는 趙昌烈의 『天安의 樓亭記와 漢詩』³⁾에 수록된 시

-
- 1) <四輪亭>을 세우려했지만 전주로 부임하게 되고 퇴임하고는 어머니의 병환으로 짓지 못하자 설계한 계획을 잃을까봐 그 것을 글로 적어 놓은 기문이다. 사륜정은 한 군데 고정되어 있는 정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네 바퀴를 달아 이동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붙인 정자의 명칭이다.
 - 2) 고려 가요의 하나. 毅宗 때 鄭敳가 유배지 東萊에서 임금을 사모하는 심정을 산 접동새에 비유하여 지은 노래로 『樂學軌範』에 실려 전한다.

를 중심으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고찰하여 지은이의 심경을 찾아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천안지역의 특색과 누정시

누정은 대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가 지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누가 소유하였느냐에 따라 기능을 달리 하였다.⁴⁾

천안지역의 누정도 이에 따라 기능의 차이가 있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백제 초기의 도읍지였고 여초 삼국의 접경지였으며,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 때문에 이곳 누정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여 각 지역의 누정시를 살펴보면 내용상 뚜렷한 특성이 발견된다.

이에 지역의 특색에 따라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서 각 지역의 누정에 붙여진 시에 역사적, 지리적, 자연적 환경에 의해 나타나는 특성을 찾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부지역에 해당되는 직산과 성환은 우리의 역사서 『三國史記』·『三國遺事』·『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 기록되어 있듯이 백제 초기의 도읍이었으며 성환역을 기점으로 하여 영호남과 내포지방으로 갈라지는 곳이었다. 때문에 이 구역에 산재한 누정의 시에서는 이곳의 역사가 적시되어 있는 시와 갈림길에서 읊은 幽愁시가 많이 보이고 있다.

직산의 <濟源樓>는 徐居正이 공무로 영남으로 내려갈 때 이곳에 들러 지은 시 「濟源樓」와 具鳳齡이 이 시를 차운하여 지은 「次稷山濟源樓韻」이 있는데, 이들 시에서 백제의 亡國之恨을 노래하고 있으며, 직산

3) 조창열 역, 『天安의 樓亭記와 漢詩』, 한국학술정보(주), 2008.

4) 정훈, 「전북지역 누정문학의 연구현황과 전망」, 『제49회 국어문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1.

객관 동쪽에 위치한 <靈召亭>은 조선 임금 현종의 자취가 묻어있는 곳 이어서 1665년 현종이 온양으로 행차하실 때 정자를 짓고 감상하였던 일을 숙종이 들러 회고하고 있다. 이 때 임금을 수행했던 趙泰采, 李健命, 金幹, 李觀命 등 관리들이 이 시를 차운하여 헌시하였는데 무려 44 수나 되며 이들 시에서 그 때의 분위기가 영상으로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滌愁樓>는 성환역 객관 남쪽에 있었던 누각으로 관리들이 공무 또는 휴가를 얻어 가다가 이곳을 경유할 때 묵으면서 누각에 올라 그 느낌을 시로 노래하고 있다. 그 중에 다수의 시가 자신의 근심을 떨어내려는 내용이다. 申濡의 「滌愁樓」, 李選의 「成歡滌愁樓」, 任墜의 「寒食登滌愁樓」, 李殷相의 「滌愁樓」 등의 시가 그러한 내용인데 왜 <滌愁樓>라고 懸名하였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둘째, 중부지역은 현재 천안 시가지에 해당되는 곳이다. 이 지역의 누정은 <南院樓>, <宣化樓>, <水仙亭>, <龍珠亭> 등이 있는데 현재 <南院樓>, <宣化樓>, <水仙亭>은 이미 소실된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 터의 흔적과 『寧城誌』⁵⁾에 記, 그리고 詩가 전해지고 있다.

이곳은 고려태조의 자취가 많이 남아 있는 곳으로 기록에 의하면 태조가 남하정책을 펴는데 가장 중요한 요지로 여겨 天安府를 설치하였다고 하며 현재까지도 王子山, 留王골, 聖居山, 五龍洞 등 그의 자취가 지명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金宗直의 「登天安宣化樓」와 朴長遠의 「題天安郡樓」에 태조를 회상하고 그의 발자취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삼남으로 통하는 길목이며 중요한 행정구역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이곳을 경유하는 선비들이 남긴 시 중에 이곳 수령과의 관계를, 그리고 갈림길에서 자신의 幽愁를 토로하고 있다. 趙昱의 「登南院樓」, 河演의 「謫天安郡登鄉校新樓偶吟」, 趙泰億의 「天安水仙亭」, 魚有

5) 1852년(철종 3)에 편찬된 충청도 천안군(지금의 천안시) 읍지. 지도가 첨부된 목활자본. 표지에는 '寧城誌乾坤'으로 되어 있다.

鳳의 「水仙亭偶吟 五首」는 이곳 수령과의 관계를 그린 것이고, 李承召의 「宣化樓」와 吳翻의 「天安宣化樓」에서는 깊은 幽愁의 심상을 느끼게 한다.

<龍珠亭>은 천안객관에 있던 누정을 옮겨 천안의 五龍爭珠의 지형에서 여의주에 해당하는 남산에다 1960년대에 건립한 정자이다. 이곳에서 지은 시 姜麟煥의 「會龍珠亭餞春」, 韓相旭의 「龍珠亭」은 누정에서 벌어지는 일상을 노래하고 있어 여기에서 누정문화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셋째, 남부지역은 현재 목천, 병천과 광덕에 해당하는 곳으로 천안지역에서 자연적인 勝地가 많다. 그래서 이곳의 누정은 대체적으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해 있어 풍광이 뛰어난 까닭으로 자연산수를 소재로 하여 노래한 시가 대부분이다.

누정으로는 <老隱亭>, <伏龜亭>, <聖溪亭>, <永樂亭>, <勸農亭>, <木州亭>, <落水亭>, <景寒亭>, <寒岡亭>, <自閑亭>, <就陰亭> 등이 있는데 특히 이들 정자 중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老隱亭>, <伏龜亭>과 落水亭 주변의 <落水巖>은 명망 있는 많은 문인들이 와서 훌륭한 작품들을 남겼다.

<老隱亭>에서는 목천의 8문장가 중의 金芝秀, 柳榮茂, 韓正履가 지은 시가 있고, <伏龜亭>에는 조선 중기 시인 金得臣, 낙론의 대표적 학자 李緯, 역사, 지리, 천문, 상수에 박통한 호론 학자 蔡之洪, 己卯八賢 중의 한 사람인 金滉, 성리학자 朴胤源 등이 와서 시를 붙였다. 그리고 <落水亭>의 주변은 壽石이 奇異하고 山明水麗하여 尤庵 宋時烈이 둘러보았는데 바위에 남긴 그의 글씨 ‘落水巖’ 석자가 지금도 선명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안 누정의 시에 각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타지방에서 가질 수 없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특색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Ⅲ. 천안지역 누정시의 시적 특성

1. 亡國과 開國의 발자취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백제 초기 온조왕이 이곳을 도읍으로 정하였고, 삼국의 접전지역으로 고려 태조가 국운을 융성시키는데 이 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곳곳을 돌아보았으며, 조선시대 때에는 여러 임금이 溫宮으로 행차할 때, 또는 환궁할 때 거친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발자취가 누정에 묻어있다.

따라서 그들의 자취를 누정시를 통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시를 감상하고 이해하여 보고자 한다.

서거정⁶⁾이 영남으로 명을 받아 갈 때 직산 객관 동북쪽에 있는 <濟源樓>⁷⁾에 올라 그 감회를 읊고 있다.

百濟遺墟草自平	백제의 옛터에는 풀만 우거지고
我來感慨一傷情	찾아보니 감개무량하나 마음만 상하네.
五龍爭罷天安府	오룡은 천안에서 싸우다가 그치고
雙鳳鳴殘慰禮城	봉황 한 쌍은 위례성에서 울다 지쳐 버렸네.
始祖祠深紅樹合	시조의 사당은 그윽하게 단풍나무와 어우러져 있고
聖居山擁碧雲橫	성거산을 둘러싸고 푸른 구름이 걸려있네.
登樓多少秋風思	누각에 올라 가을바람에 시름할 때
何處吹殘鐵笛聲	어디선가 태평소의 여운이 들려오네.

이 시는 『筆苑雜記』에 실려 있는데 누각에 올라 멸망한 백제 터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는다. 이 시에 나타난 그의 심정을 눈여겨보면 서거정

6) 조선 초 문신이자 학자. 자는 剛中, 자는 子元, 호는 四佳亭 또는 亭亭亭이다.

7) 직산현 객관 동북쪽에 있었던 누각이다.

이 관리 또는 문학가의 위치에서만 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학자로서 감정표출에 비중을 더 두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내가 이곳을 지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으나 길이 바빠서 들릴 시간을 내지 못하고 바라다만 보았는데 지세가 편협해서 흥업의 기상이 충만하지 못하므로 마음 스스로 의심하였다. [그런데] 지난해 삼국사절요를 편찬하면서 여러 책을 상고해 보니 직산이 백제의 첫 도읍이었음을 의심할 것이 없었다.⁸⁾

그는 백제 도읍으로 확신이 서지 않다가 『三國史節要』⁹⁾를 편찬하면서 확신하게 되었고, 남으로 가던 길에 찾아와 백제의 옛 땅을 둘러보고 있다.

누각에 올라 풀만 무성한 백제 옛 땅을 바라보면서 감개하는 모습이 보인다. 一傷한 마음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시조의 사당과 碧雲에 둘러싸인 성거산의 쓸쓸함과 가을바람을 맞으며 당시를 떠올려보는 모습은 그의 심정을 읽을 수 있게 한다. 여기에 구슬픈 철피리 소리가 시인의 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 시에서 시구를 감각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은 지은이의 감정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경련에서 ‘紅樹’와 ‘碧雲’은 시각적으로, 절구에서 ‘秋風’과 ‘鐵笛’은 청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景에서 情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배치하여 시상을 높여주고 있다.

구봉령도 「次稷山濟源樓韻」에서 <濟源樓>에 올라 백제의 옛 도읍을 바라보며 그 감회를 읊고 있다.

蒼茫籬落暝煙橫 울타리에 지는 해는 저 멀리 걸렸는데
故國興亡感客情 고국의 흥망은 나그네의 마음을 흔드네.

8) 徐居正, 「濟源樓記」, “居正道過此 非一再而因行迫未暇一入矣 望見地勢偏狹 無磅礴扶輿之氣 非健都之地也 心竊自疑 去年撰三國史節要 歷考諸書 稷之爲百濟始都無疑矣”

9) 조선 전기에 서거정(徐居正) 등이 편년체(編年體)로 편찬한 단군조선에서 삼국까지의 역사서이다.

汴水空餘西苑樹	변수 ¹⁰⁾ 의 빈 서편엔 나무만 우거지고
金陵唯有石頭城	금릉 ¹¹⁾ 에는 오직 석두성 ¹²⁾ 만 남아있네.
東明舊緒雲俱滅	동명왕의 옛 실마리는 구름과 함께 없어졌고
南漢遺墟草自平	백제의 남은 터에는 풀만 무성하게 자랐네.
却賀聖朝隆祀典	옛 왕조 기려 제사를 성대히 지내니
溫祖千古永流聲	온조왕 그 이름이 영원히 전해지리.

옛 백제의 자취가 사라진 빈터에 와서 그 때의 일을 회상하며 슬픈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백제 도읍의 자취는 오직 위례성뿐이고 동명왕 후예가 세운 도읍은 오간데 없이 풀만 무성하다. 쓸쓸한 마음으로 사당을 찾아 제사를 지내면서 백제의 역사가 영원히 잊히지 않기를 기원하고 있다.

「次稷山濟源樓韻」도 백제의 옛 터에 와서 망국의 슬픔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시 「濟源樓」와 내용상 비슷하다.

그러나 앞의 두 시가 표현한 시어의 선택에 있어 靜動의 차이를 느낀다. 「濟源樓」는 五龍, 鳳凰, 碧雲, 鐵笛과 같은 動的인 시어로 구사했다면 「次稷山濟源樓韻」는 空餘, 遺墟, 祀典, 流聲과 같은 靜的이거나 움직임이 미약한 시어를 사용하고 있어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 따라서 「濟源樓」는 시의 분위기가 매우 능동적이며 또한 경련에서 ‘紅’과 ‘碧’으로 색채를 대조시킴으로써 지은이가 느끼는 감정을 강하고 뚜렷하게 해 주는 반면 「次稷山濟源樓韻」는 지은이의 감정이 잔잔하게 다가오는 느낌을 주고 있다.

고려 태조의 자취를 보여주는 시도 보이는데 천안은 그의 강한 숨결

-
- 10) 중국 하남성에서 황하로 연결되는 강으로 여기서는 직산에 흐르는 내를 가리킨다.
 - 11) 중국 남경을 말하는데 楚, 越의 접전지역으로 초나라 위왕이 월나라를 멸망시키고 이곳에 왕의 기운이 있다고 여겨 금을 묻어 기운을 눌렀다고 하여 금릉이라고 불린다. 여기서는 직산을 가리킨다.
 - 12) 삼국시기 오나라가 금릉에 돌로 성을 쌓아 석두성이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위례성을 가리킨다.

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후삼국시대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어서 이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太祖 13년 庚寅에 東西兜率을 합하여 천안부로 삼았다. 전설에 의하면, 술사 예방이 태조에게 아뢰기를, ‘삼국의 중심으로서 五龍이 구슬을 다투는 형세이오니, 만일 [이곳에] 큰 고을을 두면, 백제가 스스로 와서 항복하오리다.’ 하므로 태조가 산에 올라 두루 살펴보고 비로소 천안부를 설치하였다.¹³⁾

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려 태조가 남하정책을 펼치는데 성패가 달린 곳이었다. 때문에 아직도 그의 체취 및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 이곳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에 천안의 누정사에서 그의 자취가 묻어있는 시가 보이는데 朴長遠¹⁴⁾의 시 「題天安郡樓」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層軒一望四郊平	층루에 올라 바라보니 온 들이 넓어 보이고
俯仰千年獨客情	생각해보니 천년이 오직 나그네의 정이로다.
浙右佳篇餘板刻	절강사람의 뛰어난 시구가 판각에 새겨 있고 ¹⁵⁾
麗王陳迹紀山名	고려왕이 베푼 자취가 산이름에 남았구나.
秋天欲雨雲俱黑	가을 비 내리고자 먹구름 덮이는데
晚木舍風葉盡鳴	늦은 나무 바람에 나뭇잎소리 요란하구나.
此去神京知幾許	여기에서 서울이 그 얼마나 떨어졌나.
瓊樓玉宇歲崢嶸	대궐 같은 옥택이 해마다 높아지구나.

「天安郡樓」는 천안의 남쪽 구원거리(현재 구성동을 가리킴)에 있는

13)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지리지」, “高麗太祖十三年庚寅, 合東西兜率爲天安府. 諺傳術師藝邦啓于 太祖曰 ‘三國中心五龍爭珠之勢, 若置大官, 則百濟自降.’ 太祖乃登山周覽, 始置天安府.”

14) (1612-1671) : 조선 중기의 문신. 편찬에 참여했다. 자는 仲久, 호는 久堂·隰川, 시호는 文孝, 본관은 高령임. 시문집으로는 『久堂集』이 있다.

15) 문집에 “郡有王字山客舍 有浙人詩”라는 주석이 있어 ‘佳篇’은 절강인 시의 현판으로 사료된다.

<南院樓>¹⁶⁾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시는 지은이가 늦가을 서울로 가는 도중 <天安郡樓>에 올라 그 감회를 읊고 있다. 가을바람과 낙엽 지는 소리에서 느낄 수 있듯이 쓸쓸한 나그네의 심정을 그려내고 있는데, 함련에서 ‘麗王陳迹’ 즉 고려 태조의 행적을 떠올리며 ‘紀山名’ 이라 하여 왕자산을 가리키고 있다. 王字山은 상봉, 중봉, 하봉이 王字의 형태를 띠고 있어 붙여진 이름인데, 고려 태조는 이 산을 후삼국통일 대업을 완수할 天下安泰의 명산으로 여겼다. 그래서 ‘天下安泰’에서 천안이란 지명이 由來되었다한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활동한 까닭으로 그의 陳迹과 관련된 지명이 많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高麗 太祖 關聯 天安市 地名¹⁷⁾

位置	題名	由來
성거읍	聖居山	고려 태조가 오색구름에 휩싸인 산을 보고 성인이 사는 산이라 이름함. 제사를 올리게 함.
직산읍	愁歇院	수혈원에서 고려 태조가 “聖居山”이라 작명함. 시름세
목천읍	留王谷	유왕골. 고려 태조가 머문 곳.
	馬占	고려 태조가 말을 매어 두었던 곳 이라함.
	龍淵池	고려 태조가 이 우물을 자주 와서 마셔 용연이라 함.
	臥龍	고려 태조가 낮잠을 잔 곳.
	高麗山	왕건이 남정을 할 때 이곳에 성을 쌓고 주둔함.
풍세면	南館	고려 태조가 천안도독부 남쪽에 남관을 설치함.
천안	留麗王寺	고려 태조가 머문 사찰. 상명대학 터 - 3층 석탑 발견.
신안동	太祖山	고려 태조가 올라 지세를 살핌. 留麗王山이라고도 함.

16) 천안 구성동(구원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고려 우왕 1년(1375년)에 세웠다고 전해지는데 <천안군루>로도 불리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17) 「백제, 고려태조 관련 지명조사연구」, 천안지역사문화연구실, 2011.

천안 신안동	鼓庭	왕자산 아래 천안도독부 군사주둔지. 군 사열을 받던 곳.
	留糧洞	고려 왕건이 8만여명 분의 군량을 저장함.
	馬占山	馬占(말을 매었던 곳)에 있는 산. 馬占寺
	長泰山	유량골 입구 산, 고려군이 장대를 설치. 將臺山, 將台山
	卒邏고개	덕전리로 넘어던 고개, 고려 졸라들이 훈련했다함
부대동	懸鼓山	달북재, 달고산, 왕건이 군사를 주둔, 조련시 북을 매달은 진영지. 부투리, 비투리, 북뜰, 북들. 달북재 (達鼓峯)
구성동	골울	골울-谷柵
삼룡동	둔지동(屯地)	고려군 주둔한 곳
	유려왕사탑 3층석탑	상명대 본관 건물 아래쪽 남쪽 보리밭 지주 이관 영 발굴. 고려 태조가 묵었던 절 유려왕사 터로 추정.

이처럼 鼓庭, 유량동, 장태산, 졸라고개, 달북재, 골울, 둔지동, 유왕골, 마점, 용연, 와룡 등의 지명으로 유추해 볼 때 이곳에서의 그의 일상을 짐작할 수 있다.

아마도 지은이가 누각에 올라 태조가 남긴 역사의 흔적을 떠올리며 감회를 느꼈을 것이다.

金宗直¹⁸⁾의 「登天安宣化樓」에서도 고려의 亡恨을 느끼며 쓸쓸한 심경을 담고 있다.

宣化樓中望玉京	선화루 안에서 옥경을 바라보니
南山兩暗北山明	양쪽으로 가려 북산만 뚜렷하네.
麗王祠廟今在何	고려왕 사당 ¹⁹⁾ 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野草閑花滿鼓庭	이름 없는 들꽃만 고정에 가득하네.

18) (1431-1492). 조선 초기의 문신. 본관은 선산. 자는 季暹, 호는 估畢齋이다.

19) 994년 왕자산 아래에 건립되었음. 1349년 천안군수 成元揆에 의해 복원정비를 시작하였다.

그가 <宣化樓>²⁰⁾에 올라 태조묘와 鼓庭이 있었던 북쪽을 바라보면서 감회를 술회하고 있다. 이는 그가 고려와의 연계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아버지 金叔滋는 麗末鮮初에 공직에서 은퇴하여 고향에서 후진 양성에 힘썼던 吉再²¹⁾의 제자였으며, 김종직은 아버지로부터 그 학문을 계승했으므로 길재의 학통을 계승한 셈이 된다. 그래서 천안에서 고려의 유적과의 만남은 더욱 각별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조선시대 임금의 자취가 남아있는 정자가 있다. 직산은 내포지방으로 통하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여러 임금이 溫宮으로 행차하다가 또는 환궁하기 위해 거쳐 간 곳이다. 바로 그곳에 <靈沼亭>²²⁾이 있는데 이 정자에 현종과 숙종의 흔적이 남아 있다.

「靈沼亭」은 肅宗²³⁾께서 온양으로 행차하시다가 잠시 머물러 지은 시로 그 감회가 남다름을 짐작하게 한다.

方塘之北有蓮亭	못 옆 북쪽에 연정이 있는데
追憶當年涕自零	당년을 생각하니 눈물이 절로 나네.
瞻號觀文增我感	현관을 바라보고 기문을 살피니 감흥이 일어
於乎感德筆難形	야! 그 感德을 붓으로 다 형용할 수 없구나.

숙종께서 감흥이 일었던 것은 宋時烈²⁴⁾ 이 찬한 記文을 보고 선대 임

20) 천안 객관 동쪽에 있었던 누각인데 지금의 오룡우체국자리이다.

21) (1353-1419). 자는 再父, 호는 治隱, 金鰲山人이다. 고려 三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색과 정몽주 등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히고 성균관 박사가 되어 유생들을 가르쳤다. 대표적인 저서에 『治隱集』, 『治隱言行拾遺』 따위가 있다. 포은, 목은과 더불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려할 때 ‘不事二君’을 주장하며 개국에 참여하지 않은 대표적인 선비들이다.

22) 객사 터 동쪽에 있는 행궁 터. 조선조 18대 현종 6년(1665) 4월에 현종이 온양온천에 거동할 때 행궁을 짓고 연못을 판 후 연씨를 뿌리고 영소정이라 하였다.

23) 조선 제19대 임금(1661-1720, 재위 1674-1720). 이름은 순(燾)이며 자는 명보(明普)이다.

금 현종의 자취를 보았기 때문이다.

현종 6년 을사에 大駕가 온양으로부터 환궁하다가 직산 동헌에 입어하였는데 동헌 앞에 작은 연못이 있어 사방이 몇 자쯤 되었다. 임금의 그 맑은 물을 사랑하여 걸어서 못가에 이르러 내관에게 蓮씨를 뿌리도록 명했다. 얼마 후에 돈작 만한 푸른 잎이 물에 나오니 백성들이 모두 나와 구경하기를 요임금의 뜰에 생겼던 상서로운 蕙莢²⁵⁾처럼 여길 뿐만이 아니었다.²⁶⁾

1665년 을사년 4월과 1667년 정미년 여름, 아버지 현종이 다녀갔던 흔적을 느끼는 순간 숙종은 눈물을 흘리며 감회에 젖는다. 감회의 정도가 결구에 나타나 있는데 글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감격하고 있다.

이때에 숙종을 모시고 갔던 신하들도 이 시의 운자를 차운하여 시를 지었는데 44수나 되었다. 이 시를 모아 『靈召亭廣和帖』²⁷⁾을 刊하였는데, 그 중 金幹²⁸⁾의 「敬和稷山靈召亭」 二首 중 其一을 살펴보면 숙종의 감회가 어떠했는가를 느낄 수 있다.

-
- 24) 조선 숙종 때의 문신(1607-1689). 자는 英甫, 호는 尤庵이다. 서인 노론의 영수로 1689년 왕세자가 책봉되었을 때 이를 반대하는 상소를 했다가 후에 사사되었다.
- 25) 堯 임금 때에 났었다는 祥瑞로운 풀이름.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매일 한 잎씩 났다가, 열엿새부터 그믐날까지 매일 한 잎씩 떨어졌으므로 이것에 의하여 달력을 만들었다고 한다.
- 26) 宋時烈, 「靈召亭記」, “上之六年乙巳 大駕回自溫陽 臨御稷山之東軒 前有小池 方可若干尺 上愛其清泚 步至其上 命內官種以蓮子 少焉青錢浮出水面 士民爭相告聚觀 不翹如堯庭之瑞莢也”
- 27) 숙종을 배행하였던 여러 신하들이 숙종이 지은 시 「靈召亭」의 운에 따라 지은 四十四首의 시를 모은 시첩. “廣和”란 어떤 시를 따라 이어서 화답하여 시를 짓는다는 뜻이다.
- 28)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1646-1732). 자는 直卿. 호는 厚齋. 박세채·송시열의 門人으로, 禮學에 조예가 깊었다. 저서에 『東儒禮說』, 『厚齋集』 따위가 있다.

先朝遺跡尙留亭 선왕의 남긴 자취 영소정에 남아있어
 依舊芙蓉玉露霽 옛날처럼 연잎엔 옥 이슬 떨어지네.
 此日吾王追起感 이날 우리 성상께선 감회가 이는 대로
 一篇宸翰善爲形 한 편의 시를 지어 영소정을 잘 표현했구나.

이 시에서 숙종은 현종이 다녀간 지 50년 후에 찾아와 아버지가 심어 놓은 연잎에 방울방울 맺힌 물방울을 보고 옛일을 회고하며 그 감회하는 모습을 잘 그리고 있다.

위의 御製 承句에서 ‘追憶當年涕自零’라 하여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임금으로서가 아닌 아버지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효성이 지극하였음이 느껴진다.

疎齋 李頤命²⁹⁾이 지은 『靈沼亭廢和帖』 발문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지난날 제왕들이 읊은 시가는 물론 많았다. 폐의 한고조 유방의 「汾陰之歌」 같은 것은 다만 호방한 풍취를 따랐고, 그 외에는 잔치의 노는 자리에서의 시편 이어서 언급할 것이 못된다. 어찌 우리 성상이 어버이를 그리는 추모의 정과 같을 손가. 노래를 빌려서 효행을 깨우치고 세상을 바람에 나부끼듯 교화하였도다. 마치 해와 달이 초목을 비추듯이 영원히 천하에 드리우리라.³⁰⁾

숙종의 시 「靈沼亭」에서처럼 아버지에 대한 감회를 슬회하고 있는데 비해 그를 수행한 신하들은 아버지 현종을 그리워하는 숙종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그리고 있어 숙종의 효성에 대한 진정성을 더욱 느끼게

29) (1658-1722).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全州. 자는 智仁 또는 養叔, 호는 疎齋이다. 저서로는 시·문을 엮은 『疎齋集』 20권 10책이 전하고, 또 『良役變通私議』 등이 있다. 시호는 忠文이다.

30) 『疎齋集』에 실려 있다. “前世帝王 詠爲歌詩者固多矣. 如沛中汾陰之歌 徒尙雄豪之氣 其他遊宴之什 又不足言 豈若我聖上羹牆之慕 托之永言 孝悌之化 風動四方也哉. 若其昭回之光 衣被草木 將與天壤永垂無極”

한다.

위의 누정시를 통하여 지난날의 각 시대 임금의 자취를 살펴보았다. 풀만 무성한 백제의 옛 터에서 亡恨의 쓸쓸함이, 태조가 남긴 자취를 보며 情恨의 그리움이, 아버지 현종의 흔적을 보며 感淚하는 숙종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2. 갈림길에서의 悔恨과 幽愁

천안은 지리적으로 삼남으로 가는 길에 위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경유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래서 선비들이 나라의 공무로 지나거나 벼슬을 버리고 귀향할 때 이곳의 누정에 올라 쉬면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 속내를 시로 표현하고 있다.

李承召가 공무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다가 <宣化樓>에 올라 읊은 시인데 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歸來暫歇古寧州	돌아오는 길에 잠깐 옛 영주 땅에 쉬니
客舍東隅有小樓	객관 동쪽 모퉁이에 작은 누각이 있네.
雲外碧岑如露髻	구름 밖의 푸른 멧부리 상투를 드러낸 듯
樹間涼吹解生秋	나무 사이의 서늘한 바람 가을을 알리네.
偶成遽榻還家夢	우연히 대자리에 누워 귀향을 꿈꾸었으나
不刻龍鍾作宦遊	못나게도 벼슬살이 버릴 줄 깨닫지 못했네.
只爲思親心最苦	다만 어버이 생각하는 마음 너무 괴로워서
登臨無地可消憂	높은 곳을 올라 보니 근심 씻을 길이 없네.

천안 객관 동쪽 모퉁이의 누각에 올라 향수를 노래하고 있다. 벼슬살이 때문에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신세를 한탄함과 부모님 생각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적고 있다.

頷聯의 ‘雲外碧岑如露髻’는 遠景을 표현하고 있는데, ‘雲外碧岑’로 갈 수 없는 먼 고향 땅을 그렸으며 ‘樹間涼吹解生秋’는 近景을 서술하고 있

는데, 갈 수 없는 자신의 신체가 한스러워 ‘涼吹’, ‘秋’로써 쓸쓸한 심정을 이입하였다. 頸聯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고 일어나 생각해보니 고향에 갈 수 없는 신체가 벼슬살이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尾聯에서 괴로운 심정이 더욱 고조되는데, 그것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괴로워 잠 못 이루는 지은이의 심경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벼슬살이 때문에 잠재울 수 없는 근심을 吳翻의 시 「天安水仙亭」에서도 잘 그려주고 있다.

池臺向夜淡煙生	연못가 누대에는 옅은 밤안개 피어오르고
水際流螢箇箇明	흐르는 물 사이로 반딧불이 반짝거리네.
徙倚曲闌無夢寐	한갓 난간에 기대어 잠 못 이루나니
十年江海宦遊情	지난 10년의 시골 벼슬살이 시름만 있구나.

옅은 밤안개 피어오르는 <水仙亭>³¹⁾에 올라 지난 십년의 벼슬살이를 회고하고 있다. 지방에서의 벼슬살이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시름하는 지은이의 모습이 역력하다. 자신과 반딧불을 상반된 처지로 설정하여 노래하고 있는데 ‘箇箇明’과 ‘無夢寐’에서 그것을 느끼게 해준다. 난간에 기대어서 빛을 내며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반딧불을 보고 마냥 부럽게만 느꼈을 것이다.

그의 시 「食後」를 보면 그가 시름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해준다.

식사 후 천천히 채소밭 걸으니 / 병든 아내 뒤 따르고 어린 아이 앞선다. / 인생의 즐거움에 남은 바람 없는데 / 누가 스스로 수고롭게 일생을 보내리오.³²⁾

바로 그가 바라던 삶을 이 시에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가 갈구하

31) 오룡동 郡衙의 왼편에 있었던 정자. 못에는 수연의 꽃이 만발하여 <天安蓮亭>이라고도 하였다.

32) 『天坡集』, “食後徐行向菜田 病妻隨後稚兒先 人生此樂餘無願 誰自勞勞送百年”

는 것은 초야에서 밭을 갈며 처자식과 함께 오순도순 사는 삶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의 두 시는 누각에 올라 자신의 근심을 떨어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벼슬살이와 還鄉의 갈등에서 고뇌하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아래의 두 시는 시름을 풀어 해소하려는 내용이라서 위의 두 시와 비교가 된다.

「滌愁樓」는 申濡가 성환역 역루에 올라 읊은 노래로 수심이 느껴진다.

暇恩南來路轉催	휴가 받아 남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는데
譯樓西日暫徘徊	역루에서 저녁 무렵에 잠시 배회하네.
煩襟得酒愁全減	잡생각에 술을 드니 근심이 다 없어지고
冗故驅人髮已摧	쓸데없는 일로 사람을 모니 귀밑머리만 희었구나.
陂水綠添夜秋漲	푸르른 못 물에 가을밤이 출렁이고
渚蓮紅墮露前開	물가의 붉은 연꽃은 이슬을 머금고 있네.
十年湖外登臨地	십년 만에 호서 밖 자연을 벗 삼았는데
潦倒 ³³⁾ 誰言作賦才	늡고 쇠하여 누가 시 짓는 재주를 평가해 주랴.

성환의 <滌水樓>³⁴⁾는 역루로서 관리들이 공무로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유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다가 쉬면서 모든 근심을 씻어 버리는 뜻에서 <滌水樓>라 이름한 것인데 李種徽가 쓴 「滌愁樓記」에 보면 그 연유를 짐작할 수 있다.

누대에 올라 사방을 보니 성거산으로부터 서쪽이요, 소사교의 북쪽으로 바다 끝까지 큰 들판이 한 눈에 다 들어와 보는 자가 상쾌하다고 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나그네가 이곳을 지나가면 모두 공사간의 근심과 득실의 계기로 인하여 마음속에 근심을 품고 있다가도 이 누각에 올라 와 사물을 바라보고

33) 노쇠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함.

34) 성환역 도찰방 옆에 위치하였는데 척수루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추측과 주장이 무성하다.

바람을 쐬면 근심이 씻겨 나가는 듯하다.³⁵⁾

누각에 올라보면 사방이 탁 트인 환경과 시원한 바람으로 인하여 ‘나그네들의 근심이 씻겨 나가는 듯하다’고 하여 나그네의 시름을 다 털고 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위의 시는 申濡가 휴가 받아 환향하다가 성환역에 머무를 때 감회를 읊은 것인데 누각에 올라 근심을 씻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인다. 이 시에서 술 한 잔으로 그 동안의 수심이 사라졌음을 말하고 있지만 이 시의 구석구석에서 그의 수심이 엿보인다. 頷聯의 ‘冗故驅人鬢已摧’에 세월의 덧없음을, 尾聯의 ‘潦倒誰言作賦才’에 자신이 늙고 쇠함을 한탄하는 모습에서 근심을 떨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江南客子倦春遊	강남의 나그네 봄놀이에 지쳐
寒食東風獨倚樓	한식날 동풍에 홀로 누대에 기대었네.
欲滌旅愁愁不盡	나그네의 근심 씻어 내려 해도 다하지 못하고
夕陽芳草喚生愁	석양에 방초가 근심을 일게 하네.

그런 면에서 보면 위의 시 任墜의 「寒食登滌愁樓」도 내용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한식날 누대에 올라와 그의 심경을 말하고 있는데, 홀로 누대에 올라 주변의 경치를 보며 근심을 씻어내려 하지만 오히려 고뇌에 차게 된다는 내용이어서 申濡의 「滌愁樓」와 구별된다. 왜냐하면 「寒食登滌愁樓」는 ‘欲滌旅愁 ~ 喚生愁’라고 하였지만 이와는 달리 「滌愁樓」는 ‘得酒愁全減’이라 하여 마지막 구 ‘潦倒誰言作賦才’를 감추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심을 씻었다거나 씻어 내고자 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시름을 잊고 싶어 하는 심정을 반영한 것이고 누각의 명칭을 감안했기 때문으

35) “登樓而望 自聖居以西 沙橋以北 極之於海 瀾漫大野 一舉目 若可得之 覽者無不稱快 然行旅之過是者 皆有公私之憂 而得失之機 膠擾於其中 則登斯樓也 覽物向風 愁若可滌”

로 사료된다.

3. 風流와 超然

누정은 우리의 정원문화 관련이 깊다. 우리의 정원은 일본이나 중국 처럼 자연의 일부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경관에 어우러지게 집을 지어 자연을 관조하며 그 분위기를 즐겼던 것이다. 때문에 누정 역시 주변경관을 가꾸기보다는 자연과 어우러지게 조성하고 사람들은 자연 속의 한 부분으로서 즐기면서 자연과 대화하고 풍미하는 지혜를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자연 속의 누정에서 아름다운 산수를 벗 삼아 가까운 벗과 화답하면서 향유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이로써 이곳은 고급 취향의 멋스러운 여가 활동의 장소로 우리 문화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공간이 되었으며³⁶⁾ 이곳의 누정시는 누정을 에워싼 경관 묘사와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 많다.

朴胤源³⁷⁾이 <登伏龜>에 올라 시를 지은 것을 보면 정자 주위의 자연 환경을 그림처럼 그리고 있다. 그러나 자연을 서술한 것에는 담겨있는 철학적 의미가 매우 심오하다.

川上靈龜伏	시냇가 신령스런 거북이가 엎드려 있고
槐邊客馬停	느티나무 곁에서 나그네의 말이 쉬노라.
洛書觀理意	낙서 ³⁸⁾ 에서 우주만물의 이치를 살피려고
杖屨憶登亭	지팡이 짚고 자주 정자에 오르네.

거북이 모습을 한 바위가 시냇가에 자리 잡고 정자 옆 느티나무 그늘

36) 趙昌烈, 「天安의 樓亭과 선비문화」, 『유관순연구』 13호, 유관순연구소, 2008, p.21.

37) (1734-1799).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 본관은 潘南. 자는 永叔, 호는 近齋이다.

38) 洛書라는 말이 『尙書』와 『論語』에 보인다.

아래 매어져 있는 말,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정자에 오르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게 한다. 그런데 이 시에서 起句의 ‘靈龜’와 轉句의 ‘洛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故事에 의하면 4300년 전 夏나라 禹王 때 洛水에서 신기한 거북이가 등에 지고 나온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45개의 점이었다. 이것을 바탕으로 周文王이 후천팔괘를 그려 우주만물의 생성과 조화 그리고 천지운행의 이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게 되었다한다. 이로써 이를 낙수에 서 나온 그림이라 하여 洛書라 부르고 있다.

바로 지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자주 정자를 찾은 것은 우주만물의 생성소멸과 순환의 이치를 깨닫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에서는 산수에서 느끼는 흥취만이 아니라 시인이 자연을 통하려 무엇인가를 깨달으려는 의지가 보인다.

申光漢³⁹⁾의 시 「題安亭」에서도 故事의 인물을 통하여 정자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다.

村號老人那不杖	고을 이름을 노인촌이라 하니 어찌 예를 갖추지 않으리오.
里名貧士愛茲來	마을 이름을 빈사리라 하니 사랑스럽구나.
南陽耆舊龐公最	남양의 늙은이는 방공 ⁴⁰⁾ 이 최고요
西漢文章楊子才	서한의 문장은 양자 ⁴¹⁾ 가 뛰어나도다.

39) (1484-1555).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高靈. 자는 漢之 또는 時晦, 호는 駱峰·企齋·石仙齋·靑城洞主. 저서로 『企齋集說』이 있으며, 시호는 文簡이다.

40) 『高士傳 下·後漢書 逸民列傳 龐公傳』에 보면 ‘諸葛亮이 존경했던 東漢 말의 隱士로 龐德公을 가리킨다. 그는 한 번도 省府에 발을 들여 놓지 않았다. 襄陽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형주자사 劉表의 간곡한 요청도 누차 거절하다가 뒤에 가족을 이끌고 鹿門山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며 생을 마쳤다’ 한다.

41) 한나라 성제 때 사람. 자가 자운이며 성도에 살았다. 사람됨이 소탈하고 젊어서부터 이름을 떨쳤으며 임금의 부름에 甘泉·河東·長楊 등을 지어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학문을 좋아하여 『楊子法言』, 『太玄經』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그는 『太玄經』에 河圖와 洛書를 주역의 근본으로 보았다.

亭宇已空雲物改 정자 이미 고요한데 안개만 자욱하고
 酒旗何處杏花開 술집 깃발 어디인가 살구꽃 피었도다.
 樵兒未解風流遠 초동은 멀리서 온 풍류객을 이해하지 못하고
 獨唱蛇山別曲廻 오히려 사산별곡⁴²⁾을 부르며 돌아가도다.

이 시에서 고을 이름이 ‘노인촌’, ‘빈사리’라고 불리는 이유가 容齋 李荇⁴³⁾이 쓴 「安亭記」에 나타나 있다.

직산의 동쪽 한 마장 떨어진 곳을 빈사리라 이름하니 신공 덕우⁴⁴⁾의 거처이다. 공이 가난할 때 이곳에 거처하여 스스로 이름을 빈사리라 하였다. <중략> 마을 안에 많은 사람이 장수하여 흰머리 손자를 본 자가 있음에 이르렀다. 내가 삼가 절하고 말하기를 좋은 땅이니 그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하고 청하여 이름을 노인촌이라 하였다.⁴⁵⁾

이처럼 고을 명칭이 ‘老人’과 ‘貧士’라고 불리는 데에는 장수촌으로써 가난하게 살지만 예의범절이 바르고 청렴결백한 삶을 영위하고 있음이 느껴진다. 이를 頷聯에서 확인해 주고 있다. 즉 ‘老人’, ‘貧士’와 ‘龐公’, ‘楊子’의 관계를 같은 등식으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龐公과 楊子の 인물됨을 평가해 보면 이 고을의 분위기가 더욱 뚜렷해진다.

龐公이 현산 양지쪽에 숨어 살면서 형주의 劉表의 초청에도 응하지 않아 할 수 없이 유표가 찾아갔더니 밭을 갈고 있었다. 유표가 그를 보

42) 사산은 직산의 옛이름. 사산별곡은 安亭居士 辛永禧(德優)가 찬한 것이다.
 43) (1478-153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德水. 자는 擇之, 호는 容齋. 저서로는 『容齋集』이 있다.
 44) (1442-1511) 본관은 靈山. 名은 永禧. 호는 安亭. 金宗直의 문인. 司馬試에 합격했으나 불원간에 禍가 있으리라는 同門 金宏弼의 충고로 벼슬을 단념하고 稷山에 가서 南孝溫 · 洪裕孫 등과 竹林의 벗이 되어 학문에 정진, 크게 文名을 떨쳤다. 저서에 『安亭實紀』가 있으며 여기에 「師友言行錄」과 약간의 시문이 실려 있다.
 45) 『容齋集』 卷9, “稷山之東 一牛鳴地曰貧士里 辛公德優之居也 公貧而居於是故以自名 <中略> 里中人多壽考 至有見白頭孫者 荇謹拜曰吉地也 不可泯其實 請名曰老人村”

고 물었다. “선생이 벼슬과 녹을 받지 않으니 자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그러십니까?” 하자 대답하기를 “남들은 위태로운 것을 물려주는데 나만은 아주 안정된 것을 물려줄 것이요.”라고 하였다⁴⁶⁾ 한다.

또한 楊子는 성도사람으로 조정에서 줄곧 벼슬살이를 하였으나 楚와 漢이 싸울 즈음에 그만두고 강을 올라가 巴 땅의 江州에 살다가 다시 성도 陴縣으로 옮겨 와 선조 楊季가 남겨놓은 밭 한 폐기와 집 한 채에 의지해 대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⁴⁷⁾ 한다. 이는 곧 방공과 양자를 고을 사람에게 빚댄 것이다.

안개가 자욱한 정자에서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핀 모습이지만 그러한 잔의 술이 생각이 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러한 고을 분위기에 술집이 있을 리 없다. 여기에 미친한 초동이 나그네에게 전혀 눈길도 주지 않고 사산별곡을 읊조리며 돌아가는 것을 보면 가난하지만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 없는, 그런 삶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사산별곡 또한 가사는 전해지지 않지만 어떤 내용의 노래인지 짐작이 간다.

이 시는 외연적인 화려한 美와 내면적인 청초한 美가 잘 융합되어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그야말로 陋巷에서의 安貧樂道를 지향하는 顏淵⁴⁸⁾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시이다.

위의 두 시에서 節制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면 아래의 두 시는 여러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 즐기는 同樂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시이다.

유광홍의 시 「自閑亭」에서 자연 속에서 함께 즐기는 선비들의 일상을 아름답게 잘 묘사하고 있다. 선비들의 풍류가 신선하게 느껴지는 작품

46) 『尙友錄』에 보인다.

47) 『漢書』 卷87, 「楊雄傳」에 보인다.

48) 중국 춘추 시대(春秋時代) 노(魯)나라의 학자(BC 521-BC 490). 자(字)는 자연(子淵)이다. 공자가 가장 사랑하였던 제자로, 가난하고 불우한 생활 속에서도 연구와 덕을 닦는 데 전념하여 학덕(學德)이 높았다.

이다.

紅桃影裏碧溪隈	붉은 복사꽃 그림자 속 푸른 계곡에
簫灑茅簷絕點埃	시원한 띠 집 처마는 속세를 떠났구나.
玉署老仙携杖至	홍문관의 늙은 신선 지팡이 짚고 오고
梅軒舊守拍肩來	매헌의 옛 태수 어깨를 두드리며 오네.
會成洛社群英座	벼슬에서 물러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
飲用蘭亭曲水杯	난정 ⁴⁹⁾ 의 유상곡수 ⁵⁰⁾ 처럼 잔을 드네.
此地重遊期早晚	이곳에서 조만간에 거듭 놀기를 기약하니
山家恐有網花猜	산골 집 그물 꽃이 시기할까 두렵네.

<自閑亭>은 목천 고을 동쪽 도화동에 있는 정자이다. 마을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중춘이면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곳일 것이다. 首聯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무릉도원을 연상하게 한다. ‘紅桃’, ‘碧溪’, ‘茅簷’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그림처럼 그려져 있고, 頷聯에서는 이곳을 즐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의 행태를 표현한 것이 매우 해학적이어서 정감이 가고 친근하게 느껴진다.

頸聯에서의 술을 마시면서 시를 읊는 모습은 이백이 형제들과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면서 흥취를 즐긴 桃李園으로 착각하게 한다. 그래서 「春夜宴桃李園序」⁵¹⁾의 金谷酒數⁵²⁾의 별주가 자꾸 떠오른다. 이 모습에서 삶의 초연함이 느껴진다. 참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한 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龍珠亭」이란 시도 정자에서의 선비들의 일상을 그리고 있다. <龍珠

49) 중국 회계군 산음현에 있는 정자. 王羲之의 蘭亭詩敍는 수설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50) 流觴曲水 : 삼월 삼짇날, 흐르는 물에 잔을 띄워 그 잔이 자기 앞에 오기 전에 시를 짓는 놀이, 술잔이 자기 앞에 오기 전에 시를 한 수 지어야 한다는 뜻이다.

51) 중국 당나라의 시인 이백의 문장이다.

52) 중국 쑤나라 때 石崇이 그의 별장 금곡원에서 벼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를 짓지 못하면 별주를 내린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亭>⁵³⁾은 명칭대로 천안 풍수지세에서 여의주에 해당되는 남산에 지어진 정자이다. 그래서 이 정자의 위치가 시가지를 경계로 하고 있다. 이 시는 韓相旭이 지었는데, 지어진 시기가 1980년대 이 후로 추정된다. 때문에 남산 주변의 시가지가 그 때와 현재가 거의 변하지 않았으므로 이 시를 읊으면서 시가지 모습을 그려보면 훨씬 현장감이 느껴진다.

與友登攀聳立亭	벗과 함께 우뚝 솟은 정자에 올라가니
亭中坐客似群星	정자 안 좌객들이 못별처럼 빛나네.
周邊巨閣繁華市	주변의 큰 집들이 변화한 시가지를 이루고
側近靑林錦繡屏	정자 옆 푸른 숲이 비단 병풍처럼 둘러 있네.
高士來詩餘喜樂	훌륭한 선비들은 시 지으며 즐거워하고
寧城自古多名勝	영성은 예로부터 명승지가 많았다네.
文章會處有新醒	문장들이 모이는 곳엔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
勸賞留連興滿庭	감상이 이어지니 흥취가 뜰에 가득 하네.

이 시는 정자에서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자를 비단 병풍처럼 둘러싼 푸른 숲을 벗 삼아 여러 회원들이 모여 시사회를 열어 즐기고 있다. 서로 지은 시를 읊으며 감상에 젖어 즐기는 모습이 느껴진다. 흥에 겹다. 그래서 삶에 바쁘고 지친 변화한 시가지와 대비가 된다. 頷聯에서 정자와 시가지를 ‘錦繡屏’으로 경계삼아 이상과 현실의 세계를 가르는 듯하다. 따라서 ‘周邊巨閣繁華市’지만 ‘亭中坐客’들은 이곳에서 즐기고 있을 때만큼은 ‘錦繡屏’ 밖의 ‘巨閣繁華市’가 異界로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즐거움이 미련에서 극에 달하고 있다. 각자가 시를 지어 읊을 때마다 일어나는 감흥은 어디에도 비할 것이 없다. 여기에서 우리의 선비정신이 이어지고 있음이 느껴진다.

「自閑亭」과 「龍珠亭」은 뜻이 맞는 사람들과 자연 속에서 감흥을 일으키고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표현했다면 「伏龜亭」과 「景寒亭」은 홀로

53) 천안시내 중심지인 남산에 1963년 가을 오룡동에 있던 객사를 읊기고 정자 명을 <龍珠亭>이라 하였다.

정자에서 자연에 동화되어 그 흥취를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낸다.

淸鍾殷佛舍 맑은 종소리 은석사에서 들려오고
 綠霧沈江樹 강나무는 푸른 안개에 잠겨 있네.
 漁客濕蓑衣 고기 잡는 이 도롱이가 젖었으니
 應知前夜雨 응당 전날 밤 비온 줄 알겠구나.

夕照轉江沙 석양이 강 모래톱에 깔리고
 秋聲生野樹 들녘 나무는 가을 소리를 내네.
 牧童叱犢歸 송아지를 몰며 돌아가는 목동
 衣濕前山雨 앞산 내린 비에 옷이 젖었구나.⁵⁴⁾

김득신은 天機와 사실성을 통해 생명을 조화롭게 읊은 시가 으뜸⁵⁵⁾이라는 시론을 주장한 사람이다. 위의 두 시는 연작시로 자신의 시론에 잘 부합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詩中有畫 畫中有詩란 말처럼 詩라기보다 오히려 그림이라고 느껴질 만큼 직관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두 시를 매우 절묘하게 대비하여 시의 정취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起句의 ‘淸鍾’과 ‘夕照’, ‘佛舍’와 ‘江沙’, 承句의 ‘綠霧’와 ‘秋聲’, ‘江樹’와 ‘野樹’ 轉句의 ‘漁客’과 ‘牧童’을 대비함으로써 시간, 장소, 계절, 위치, 인물을 좀 더 산뜻하게 해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어 結句에서 비온 뒤에 맑음을 가미함으로써 遠景이 클로어즈업되는 느낌이어서 이 시를 감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림 속의 주인공이 된 듯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54) 「伏龜亭」은 김득신의 작품이다. 본관은 안동. 자는 子公, 호는 栢谷·龜石山人. 진주목사 時敏의 손자이다. 그의 문집인 『栢谷集』이 있고, 홍만종의 『詩話叢林』에 실려 있는 그의 시화집인 『終南叢志』는 비교적 내용이 전문적이고 주관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 시학연구의 좋은 자료가 된다.

55) 「終南叢志」에서 시의 본질을 “무릇 시는 天機에서 얻어지는 것”이라 하여 스스로 조화의 공을 운용하는 것을 으뜸으로 여겼으며, 시를 창작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적 표현에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보아 ‘寫景逼真’의 시론을 펼치고 있다.

郭時徵⁵⁶⁾의 시 「景寒亭」도 내용면에서 詩中有畫로 앞의 「伏龜亭」과 흡사하지만 이 시에서는 정자 밖의 풍경을 안으로 끌어들이 ‘나’와 ‘자연’의 일체감이 느껴지게 한다.

樂墅雙亭起	풍년 든 뜰에는 두 정자가 우뚝하고
清溪一道通	맑은 시냇물 한 곳으로 흐르네.
泉聲來枕上	샘물소리 베개 위에 와 닿고
山色入杯中	고운 산 빛 술잔 속에 있네.
松月當窓白	소나무에 걸려있는 달빛에 창문이 밝고
巖花落水紅	바위에 핀 꽃은 물에 떨어져 붉게 흐르네.
倚欄垂釣處	난간에 기대보니 낚시대 드리운 곳에
相對兩衰翁	두 노인 서로 마주 앉아 있네.

頷聯에서 ‘泉聲’은 ‘枕上’에 와 있고 ‘山色’은 ‘杯中’에 빠져있다. 그래서 지은이는 베개를 베고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泉聲’을 베고 있고, 술잔에 술을 따라 마시는 것이 아니라 ‘山色’을 마시고 있다. 즉 청각적 심상과 시각적 감각을 배치함으로써 자연에 생명을 불어 넣어 자신과 자연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頸聯에서 ‘松月’과 ‘巖花’를 遠近의 관계로 놓아 공간적 감각을 배가시키고 또한 ‘窓白’과 ‘水紅’으로 색채를 대비함으로써 산수경관을 음미하는 효과를 뚜렷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尾聯에서 이 정자에서의 진정한 주인공은 自己自身이 아닌 자연 속에 묻혀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는 두 노인임을 깨닫고 있다.

위의 시에서 보이듯이 누정에서의 자연경관을 소재로 하고 있는 시는 그 속의 주인공이 주변의 환경과 일체감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것을 깨닫기도 하고 흥취를 돋아 일상을 즐기고 있으며, 자연에 몰입하여 彼我一體, 物心一如의 경지에 이르기도 한다. 이와 같이 達觀의 경지와 삶의 素朴함이 잘 어우러져 있는 모습에서 매우 선비들의 정서가 느껴진다.

56) (1644-1713). 조선 후기의 학자. 본관은 청주. 자는 敬叔 또는 智叔, 호는 景寒齋이다.

IV. 천안지역 누정시의 문학적 가치

살펴본 바와 같이 누정은 쉼터 역할을 하였으며 休憩의 과정에서 선비 고유의 미의식이 발현하여 누정의 문화로 발전시켰다. 여기에서의 느낌과 일상들이 자연스럽게 시로 표현되는데, 천안의 역사적 자취, 지리적 위치, 자연적 환경을 심상에 따라 그 특색이 시에 적극 반영되어 있음을 주목하여 보았다. 여기에 천안 누정시의 가치가 있으며 이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적 측면에서의 가치이다. 천안은 백제의 도읍 하남위례성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직산의 객관 동북쪽에 있었던 누각이 ‘백제의 근원’이라는 의미의 <濟源樓>이다. 이 누각에 올라 노래한 시가 서거정의 「濟源樓」와 구봉령의 「次稷山濟源樓韻」으로 백제의 옛터를 바라보며 망국을 아쉬워하며 슬퍼하고 있다. 현재 백제 초기의 도읍에 대하여 역사학자 간에 견해차가 많은 것을 보면 이 시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고려 태조의 陳跡도 곳곳에 남아 있는 곳이다. 그것이 왕자산, 태조봉, 천안 등의 지명으로 남아 있어 아직도 그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다. 시에 있어서도 <南院樓>와 <宣化樓>에 올라 지은 이와 관련된 시가 다수 보인다. 金宗直의 「登天安宣化樓」와 朴長遠의 「題天安郡樓」가 이것인데 이 시에서 오백여년 전의 역사적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또한 <靈召亭>은 조선시대의 현종과 숙종의 흔적이 묻어 있다. 아버지 현종이 거쳐 간 기록을 보고서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아들 숙종의 모습이 그가 지은 「靈召亭」에 잘 드러나 있다. 여기에서 임금이 아닌 자식으로서의 인간미가 돋보인다. 특히 肅宗을 시종한 신하들이 「靈召亭」을 차운하여 노래한 시가 44수나 보이는데 이들 시에서 임금의 동정이 잘 그려져 있어 그의 효성이 지극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리적 측면에서의 가치이다. 천안은 서울과 지방 통하는 길목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드나들었다. 공무 또는 귀향으로 이곳을 거치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며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성환은 도찰방이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 중의 하나였으므로 이곳 객관에서 묵는 나그네들이 역루에 올라 많은 시를 남겼다. 그 중에 다수의 시가 幽愁를 떨쳐내려는 내용인데 申濡의 「滌愁樓」와 任墜의 「寒食登滌愁樓」, 李選의 「成歡滌愁樓」 등이 그러하다. 이는 <滌愁樓>라는 명칭을 감안한 것이었음을 느끼게 한다.

천안 시내에 산재한 누정에서도 幽愁의 시가 다수 보이는데 李承召의 「宣化樓」와 吳翻의 「天山水仙亭」을 들 수 있다. 이 시가 자신의 근심을 떨쳐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滌愁樓>에서 지은 시와의 내용상 차이점은 잠재울 수 없는 자심의 근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자연환경 측면에서의 가치이다. 천안의 남부지역은 아름다운 勝地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따라서 이곳의 누정은 대체적으로 자연 속에 위치하고 있고 이곳을 이름 있는 소객들이 많이 찾아 주옥같은 작품을 남겼다는 점이다. 朴胤源의 「登伏龜亭」, 金得臣의 「伏龜亭」, 「自閑亭」, 「景寒亭」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누정문화의 일면들을 볼 수 있으며, 선비들의 풍류와 정서가 느껴진다.

이처럼 천안의 누정에 묻어있는 가치가 시를 통하여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타 지역에서 느낄 수 없는 천안의 역사적 자취와 지리적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자연적 환경이 어우러져 이 지역 누정문화가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고, 이와 관련된 사건과 일상들이 시에 반영되었던 것이다.

V. 맺음말

천안의 누정시에 대해 고찰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周知해 볼 사항은

천안에 산재해 있는 누정의 지역적 특색을 파악하고 누정시를 고찰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본 바, 누정이 위치하고 있는 곳의 역사, 지리, 환경에 의해 시의 특성이 나타난다.

북부지역에서는 백제의 망한, 현종의 흔적에 대한 숙종과 그를 모신 신하들의 감회, 그리고 역에서 묵으면서 느끼는 滌愁적 心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부지역은 고려 태조를 회상하고 선비들의 일상과 회한을 노래한 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남부지역은 아름다운 자연산수를 묘사하여 노래가 대다수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의 특성을 고찰해보니 「濟源樓」와 「次稷山濟源樓韻」에서는 百濟亡恨을, 「題天安郡樓」와 「登天安宣化樓」에서는 고려 태조의 발자취를, 「靈召亭」에서는 숙종이 아버지 현종에 대한 감회를 읊고 있어 이 지역의 역사적 발자취를 알게 해주고 있으며, 「宣化樓」와 「天安水仙亭」에서 향수와 회한을, 「滌愁樓」와 「寒食登滌愁樓」에서는 시름을 떨쳐 버리고자 하나 떨치지 못하는 幽愁의 心象을 드러내고 있어 지리적 관문으로서 이곳을 지나는 나그네의 悔恨과 幽愁가 절절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登伏龜亭」에서는 자연을 통하여 만물의 이치를, 「題安亭」에서는 安貧樂道の 즐거움을 깨닫고 있으며, 「自閑亭」과 「龍珠亭」에서는 자연 속에서 감흥을 일으키고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伏龜亭」과 「景寒亭」에서는 자연에 동화되어 초월한 경지를 보여주는 한 폭의 仙畵같은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本攷에서 다룬 누정시를 통하여 천안의 역사적 사실을 일깨우고, 당시 사람들의 회한과 시름 속에서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들여다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누정에서 행해지는 일상과 자연 속에서의 감흥을 통하여 우리 훌륭한 문화를 이루는데 누정의 역할이 매우 지대했음이 느껴진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한 인간들의 정서가 각박해져 감에 이러한 문화가 관심 밖으로 밀려 점점 사라져 감이 안타까울 뿐이다.

앞으로 문학적 측면에서의 누정에 관한 연구가 좀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 함은 물론이지만 문화적 측면에서의 누정문화의 연구 및 보급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는 善策으로 여겨진다.

<參考 文獻>

- 김부식, 『삼국사기』, 민족문화추진회, 1977.
이행, 『新增東國輿地勝覽』, 민족문화연구회, 1996.
일연, 『삼국유사』, 민족문화추진회, 1977.
『國譯大麓誌』, 아우내문화원, 2000.
『國譯稷山縣誌』, 성환문화원, 2000.
권선길, 『國譯寧城誌』, 천안문화원, 2003.
박준규저, 「韓國의 樓亭攷」, 호남문화연구원, 1987.
오세창, 『천안의 옛지명』, 천안문화원, 1989.
정 훈, 「전북지역 누정문학의 연구현황과 전망」, 『제49회 국어문학회 정기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11.
조창열 編譯, 『천안의 누정기와 한시』, 한국학술정보(주), 2008.
천안시역사문화연구실, 「백제, 고려대조 관련 지명조사연구」, 2011.
허경진, 『충남지역 누정문학 연구』, 태학사, 2000.

Abstract

*A Study of Poem on Nujeong in Cheonan / Song Gi Seop**

Nujeong had been used as a cultural space and rest place of some high classes and intellectuals, then it was a place they enjoyed the arts and discussed ideologies and communed with nature as an influence of the Confucian idea during the Chosun Dynasty. In such a rest, they recited poems to express their feelings. Aspects of those poems vary depending on Nujeong's history, region and natural environment.

This is same in Nujeong of Cheonan. Because the northern Cheonan was early Baekje's capital and crossroads, there were mainstream poems that implied the poets' sorrow about ruination of Baekje and worry at a crossroads in there. In the central Cheonan, there remained the first king's vestige of Goryeo Dynasty and scholars stayed on their way from north to south. Therefore, there were mainstream poems that implied worry and the first king's vestige. This helped scholars to deal with their homesickness.

However the southern Cheonan had many areas of scenic beauty and pavilions in this place were located in nature, and so most poems' material was nature.

Here are some features of poems related to Cheonan Nujeong's regional characteristic. We can see sorrow for ruination of Baekje form Jewonru by Geojeong Seo and Chajiksanjewonruun by Bongryeong Gu, the first king's vestige of Goryeo from Jecheongangunru by Jangwon Park and Deungcheonanseonhwaru by Jongjik Kim and the king's vestige of Chosun from Yeongsojeong by King Sukjong. Our historical trace remains intact in these works. Seonhwaru by Seungso Lee and Cheonansuseonjeong by Suk Oh are

* Asan High school / sks4423@naver.com

poems about concern from homesickness. On the other hand, in Cheoksuru by Yu Sin and Hansikdeungcheoksuru by Bang Lim, they tried to be free from anxiety and variously expressed their feelings while passed by. Thus, these works show they reflected regional features well.

Poems recited in pavilions of scenic beauty show old scholars' friendship and philosophical thought by representing landscape and responding to friends' poems. Jahanjeong by Gwangheung Yu and Yongjujeong by Sanguk Han represent scholars' daily life on pavilion. The image they assimilated with nature in Bokgujeong by Deuksin Kim and Gyeonghanjeong by Sijing Gwak is like a picture. In addition, Deungbokgwi by Yunwon Park tells about birth and death of all things in universe and order of cycle and Jeanjeong by Gwanghan Sin represents well his anguish over the situation he wanted to enjoy Tao in poverty. This shows poets brought natural environment to poems.

And to conclude, the poem actively reflected historical, regional and natural elements by location of Nujeong. Therefore, this means Nujeong had a big effect on our great culture from their humanity in Nujeong as well as the only value of Nujeong.

【Key words】 Poem on Nujeong, Cheonan, Crossroads, Nugak. Jeongja

투고일 : 5월 10일, 심사일 : 6월 11일, 게재확정일 : 6월 13일
--